



'52년 송이꾼' 박영칠씨가 천은사 인근에서 주먹 만한 송이를 캐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지리산 최고령 송이꾼 박영칠옹

"송이 덕분에 6남매 다 가르쳤어"

지리산 최고령 송이꾼 박영칠(76·광의면 방광리)씨는 매일 오전 7시 전은사 대포소 앞에서 산을 탄다.

"자연 송이는 이제 끝물이며, 서둘지 않으면 작년만큼도 못하게 생겼당께" 52년째 송이꾼 생활을 해온 박씨는 지리산의 대표적 송이산지인 광의면 방광리 송이작목반 15명을 이끄는 '회장님'. 하지만 갈수록 채취량이 줄어 걱정이다.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채취량이 50kg 정도 감소해 땅 주인인 천은사 측에게 약속한 40kg의 송이를 빼밖에 못 건넸다.

香 못잊어 52년 지리산 못떼나

길도 없는 가파른 산길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며 오르는 박씨는 침실 노구(老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첫 번째 '송이밭'을 찾았지만 씨알이 작아서 빨길을 돌렸다. 그렇게 걸기를 2시간 여. "아파! 많이 올라왔네" 박씨가 소리쳤다. 30년 이상의 아름드리 소나무 그늘 아래였다. 뿌리를 따라 자라난 5~6개의 송이가 숲앞 밑에 숨

어 슬며시 머리만 드러내고 있었다. 송이는 소나무 향(香)을 먹는다고 했던가.

박씨의 지팡이가 주변 흙을 찌르자 진한 솔냄새와 함께 송이가 솟아오른다. 8cm 이상의 상품(上品)이었다.

그를 따라다니는 20년차 송이꾼 김영균(59)씨는 "송이는 순식간에 머리가 우산처럼 펴지면서 하품(下品)이 돼버리기 때문에 채취기간 동안은 비가와도 매일 산에 오른다"며 "남자의 성기와 비슷한 모양으로 크기가 클수록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지리산 송이는 kg당 ▲상품 17만~30만원 ▲중품 14만~16만원 ▲하품 1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소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얻는 송이는 지리산 해발 400~900m 구간에 주로 분포하고 경사가 가파르면서 적절한 습도(15~20%)와 온도(18~20도)가 유지되는 곳에서만 자란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송이밭 중 작목반원들이 공동으로 알고 있는 곳은 10여 곳. 박씨는 "공동 송이밭은 아랫도리가 빠른 사람이 입자고, 송이밭 위치는 서로 묻거나 말해주지도 않는 것이 송이꾼의

생리"라며 "돈도 좀 만졌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힘든 송이꾼 생활을 미다한다"고 걱정했다.

환경에 민감한 송이도 20년 전에는 매고 간 배낭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이 났다.

하지만 솔잎을 맘김용으로 굽어낸 옛날과 달리, 요즘은 송이 군사와 경쟁하는 토양미생물이 많아져 가을 한철 소득이 200여 만원대에 불과하다.

젊은이 없어 명맥 유지 걱정

박씨는 지리산 속살이 내어준 송이로 6남매를 가르치고 손자를 융돈을 주며, 함께 고생한 송이꾼들과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소주값을 벌어왔다. 송이 철이 지나고 추운 겨울 지리산에 폭설이 쌓이면 식료품 가게 일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바람이 하나 있다면 어디 아픈데 없이 내년에도 다시 송이를 따려 산에 오르는 것이다.

지리산 깊은 골골을 누비며 송이를 캐는 박씨의 소망은 내년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구례=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늘 폐막

30일간 23만명 다녀가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3일 폐막식을 갖고 30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감한다.

'빛 LIGHT'를 주제로 지난달 5일 개막한 이번 행사는 1일 평균 7천 600여명에 달하는 23만여명의 내·외국인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는 등 성황을 이뤘다.

올해 2회째 행사를 개최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빛을 주제로 한 주제 중심 전시를 통해 상업적인 비엔날레를 예술성 높은 행사로 끌어올리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 행사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이날 오후 6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도슨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식'을 갖는다.

한편,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는 세계 45개국 디자이너 927명과 103개 기업(기관)이 참여, 모두 2007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기온 뚝...주말 얼음 얼고 서리

이달 평년 기온 유지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면서 초겨울 날씨가 계속되겠다.

광주지방 기상청은 "3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아침 최저기온이 -1~8도까지 떨어지겠지"며 "구름·순천 등 내륙 산간 지역에서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겠지"라고 예보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다.

4일에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1~2도가량 올라 평년기온(2~19도)을 되찾을 전망이다.

한편, 이달에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초순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되겠다. 기온은 평년(2~19)과 비슷하지만 강수량은 평년(9~11mm)보다 적겠다.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2~14도)보다 높고, 가끔 비가 오면서 강수량은 평년(13~39mm)보다 많겠다.

하순에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평년과 비슷한 기온(-1~12도)과 강수량(10~30mm)을 보이겠다.

/김영기기자 wool@kwangju.co.kr



2일 아기단풍이 곱게 물든 장성군 북하면 백양사 쌍계류 앞에서 관광객들이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주말인 3일부터 이틀간 백양사 아기단풍 축제인 '쌍계류 추야몽(秋夜夢)'이 열린다.

/장성=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흥문화회관에

천경자 전시실 개관

천경자 화백의 전시실이 고흥에서 문을 열었다.

고흥군은 지난 1일 고흥군민의 날 맞아 고흥종합문화회관에서 기관단체장과 출향 할우, 미술애호가,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경자 전시실' 개관식을 가졌다.

새롭게 조성된 전시실에는 천경자 화백이 기증한 드로잉과 판화 등 66점의 작품과 아트상품, 소장품 등을 전시했다. 이 전시실은 앞으로 관광객이나 미술애호가들이 즐겨 찾을 것으로 보여, 남도의 수준높은 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전망이다.

천경자 화백은 근대 한국화의 대표적인 여성화가이자 수필가다. 1924년 고흥에서 태어나 동경여자미술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을 지냈다. 국내는 물론 동경, 상파울로 등에서 개인전과 초대전에 출품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황금의 비' 등이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서관 CCTV 등 방범 강화하자 강의실·기숙사까지

노트북...스쿠터...대학내 절도극성

광주·전남 대학가에 학생들의 금품을 훔어 달아나는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일 광주·전남지역 각 대학에 따르면 최근 학교 휴게실·강의실·기숙사 등에서 학생들의 고가 물품을 노리는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자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좀도둑 예방에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좀도둑들은 각 대학들이 도서관 내 도난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CCTV 등을 설치하자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휴게실과 강의실·기숙사 등으로 찾을 것으로 보여, 남도의 수준높은 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전망이다.

이들은 대학 구내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스쿠터·노트북·자전거·MP3·전자사전 등 '돈 되는' 물품을 훔쳐가고 있다. 목포대 박모(25)씨는

최근 학과실에서 디지털카메라와 가방을 도난당했다.

전남대 김모(여·22)씨는 지난 8월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은 후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신의 노트북을 잃어버렸다. 조선대 김모(22)씨는 지난 9월 초 학내 자전거 주차장에 자물쇠로 채워둔 자신의 스쿠터를 훔쳐려던 이모(24)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예전엔 스쿠터에 경보기 까지 달아놨는데 경보음이 울리는 전선을 가위로 자른 뒤 훔쳐가려고 하는 등 도무지 마음을 놓고 다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좀도둑이 극성을 부리자 광주·전남지역 각 대학 홈페이지에는 도둑맞은 물건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는 글이 수백건에 이르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 측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아이디 '윤석민 어린이'를 사용하는 목포대생은 "도서관에서 가방·노트북·MP3·전자수첩·공부하는 책 까지 닦치는 대로 훔쳐가고 있다"며 "여자친구도 도서관에서 화장실 다녀온 사이 운전학원에 넬 현금 50만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말했다.

각 대학들은 도서관·주차장·일부 연구실과 강의실 등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등 좀도둑 예방에 안간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전남대 70여대 ▲조선대 50대 ▲목포대 50여대 등의 CCTV가 운영되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물카 협박 아이비 前남친 구속

○...서울 강남 경찰은 2일 여자 친구였던 인기 여가수 아이비(사진·본명 박은혜·25)에게 함께 찍은 동영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이를 기각하자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오광록기자 kroh@



경찰은 병원 CCTV를 통해 임씨가 혼자 출입문으로 들어왔던 것을 확인, 김씨가 변을 보던 중 돌연사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인현주기자 ahj@

오늘 78회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제78회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대체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 교육청은 3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 제일고등학교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기념식에는 교육청 관계자, 독립운

동 유공자 및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7명에 대한 장학금 수여, 모범 학생과 예술제

참여 학생 500여 명에 대한 시상식 등이 이어진다.

앞서 오전 8시부터는 교육청 관계

자들과 학생들이 독립운동 기념탑이 있는 전남여고, 광주과학고,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돌며 기념탑을 참배 한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기념 행사를 마련해 조합원 교사들이 전남여고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안아주고 가래떡을 직접 건네 준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연합뉴스

11월 3일		(음 9월 24일)	날씨
▶해금 06:55	▶해진 17:37	▲달금 00:25	▲달침 14:17
◇주간날씨		기상내전화: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일)	5(월)	6(화)
날씨	맑음	흐림	흐림
최저/최고	5/18	8/17	9/18
			9/19
			9/18
			7/18